



“장타자 아니면 우승 꿈도 꾸지마!”

위성미가 12일 캘리포니아 팜데저트의 빅혼골프장 장 캐년코스에서 열린 삼성월드챔피언십 프로암 대회 3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삼성월드챔피언십 빅혼골프장 긴 코스 많아 위성미·소렌스탐·카리 웹 등 ‘은근한 미소’

‘장타자가 아니면 우승은 꿈꾸지 말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별들의 파티’ 삼성월드챔피언십이 ‘장타자들의 놀이터’가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의 빅혼골프장 캐년코스(파72·6천645야드)는 LPGA 투어 대회가 열리는 코스 가운데 전장이 긴 코스 중 하나이다. 파4홀 가운데 1번홀(405야드)과 4번홀(447야드), 9번홀(449야드), 11번홀(419야드), 17번홀(411야드) 등은 장타를 치지 못하는 선수에게는 버디 기회를 잡기 힘든 곳이다. 파4홀 가운데 1번홀(405야드)과 4번홀(447야드), 9번홀(449야드), 11번홀(419야드), 17번홀(411야드) 등은 장타를 치지 못하는 선수에게는 버디 기회를 잡기 힘든 곳이다. 파5홀 4곳은 15번홀(538야드)을 뺀 3곳은 473야드(3번홀), 470야드(7번홀), 508야드(12번홀) 등 비교적 짧게 만들어졌지만 장타자들이 두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릴 수 있

어 장타자들에게는 이를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다. 더구나 올해는 작년보다 코스에 변화를 주면서 페어웨이 벙커와 그린 주변을 험하게 만들어 비거리가 짧은 선수는 불리해졌고 장타자에게는 한결 유리해졌다. 11일 연습 라운드와 12일 프로암 대회를 치른 뒤 장타자들은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고 드라이브샷 비거리가 250야드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단타자’ 선수들은 한결같이 울상이었다. 긴 코스에 대해 임이 벌어진 선수는 대회 6차례 우승과 대회 3연패를 노리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대표적 사례. 역시 장타를 치는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카리 웹(호주)도 거리에 대한 부담은 없는 편이다. 장타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위성미(17·나이지리아)도 “코스 길이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크게 달라진 느낌은 없다”면서 “퍼팅이 문제지 그린까지 볼을 올려놓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 세리>



<김 미현>

“아이언 샷 좋은 우즈 쇼트게임 조심”

■ 헤이니 코치 역할적 경고

“우즈는 아이언샷을 너무 잘 해 쇼트게임이 망가지 수 있다” 2년 만에 걸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지도하고 있는 코치 헵크 헤이니가 12일(한국시간) 우즈의 쇼트게임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즈는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거두면서 생애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지만 개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 헤이니는 로이터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우즈는 올해 정말 아이언샷을 잘하고 있고, 3퍼트 횟수도 확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

나 아이언샷이 너무 잘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정확한 아이언샷으로 그린 적중률이 높아질수록 쇼트게임은 연마가 안된다는 설명이다. 벙커에 좀처럼 빠지지 않다가 어쩌다 벙커샷을 하게 될 경우 감각이 떨어져 실수를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 실제로 우즈는 이번 시즌 페어웨이 안착률이나 홀당 퍼트 수는 톱5에 들지 못하고 있으나 그린 적중률은 74.1%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헤이니는 “아이언샷을 잘하면 잘할수록 쇼트게임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면서 “이는 정작 쇼트게임을 해야 할 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현대-한화 ‘불꽃대결’ 오늘부터 플레이오프



현대와 준플레이오프 관문을 힘겹게 통과한 한화가 13일부터 5전 3선승제의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한다. 현대는 10여일 준비기간동안 추석 연휴도 반납하며 훈련으로 페이스를 끌어 올린 반면 한화는 KIA와 혈투 끝에 2승1패로 턱날을 빠져 나와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 그러나 올 해 정규시즌 양팀 간 전적이 9승9패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듯이 어느 팀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현대와 한국시리즈 길목에서 맞붙는 한화는 막강 선발진과 이범도 등으로 구성된 ‘대포 군단’의 파괴력이 강점. 여기에 ‘괴물 투수’ 류현진(18승)과 베테랑 문동환(16승)이 원투 펀치로 나서고 불혹의 송진우(8승)와 정민철(7승)이 선발진에 힘을 보탠다. 투-타 대결 못지 않게 ‘그라운드’의 여우’로 불리는 김재박 현대 감독과 ‘민음의 야구’의 대변자인 김인식 한화 감독이 벌이는 지략 대결도 팬들의 보는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

“이승엽 잔류 가능성 높다”

日 ‘스포츠포지’ 보도 “내주까지 최종 결정”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개인 군단’의 4번 타자로 1년 더 일본프로야구 무대에서 뛸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미우리 계열의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포지’는 12일 메이저리그 도전과 요미우리와의 재계약을 놓고 고민해 왔던 이승엽이 잔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다음 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재계약 조건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승엽이 메이저리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지난 시즌 후 2년 간 뛰었던 롯데 마린스를 떠나 요미우리와 연봉 1억6천만엔과 계약금 5천만엔 등 총 2억1천만엔에 1년 계약을 했던 이승엽은 최근 하라 다스노리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고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재계약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지 언론도 요미우리가 올 시즌 41개의 홈런 등 타율 0.323, 108타점, 101득점으로 4번 타자 몫을 100% 수행한 이승엽을 잡으려고 3년간 10억엔(한화 80억원 상당)의 몸값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 시즌을 마감한 이승엽은 13일 왼쪽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에 전념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재응 재계약 ‘밀리언달러 사나이’

1년간 연봉 120만 달러

서재응(29·탬파베이 데블레이스·사진)이 한국인 메이저리그 선수로는 역대 세번째로 연봉 100만달러를 돌파했다. 탬파베이는 12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재응과 계약기간 1년, 연봉 120만달러에 내년 시즌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바리케 중 연봉 100만달러를 돌파한 건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에 이어 세 번째. 박찬호는 LA 다저스 소속이던 지난 1998년 연봉 230만달러를 받은 뒤 2001년 시즌 후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간 6천500만달러의 FA 대박을 터뜨렸고 김병현은 2002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주전 마무리 투수로 36세이브를 올리며 맹활약한 뒤 이듬해 연봉 325만달러를 받았다. ‘뉴욕 메츠맨’으로 8년 간 활약하다 지난 1월5일 LA 다저스로 이적한 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6월28일 탬파베이에 새 동지를



서재응은 올 시즌 3승1패, 방어율 5.33에 그쳤다. 지난 7월30일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서 시즌 3승을 수확한 이후 10차례 등판에서 6차례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투구에 3자책점 이내)의 호투쇼를 벌였다. 하지만 팀 타선의 지연 부족과 불펜진 난조로 승수와 인연이 적었기에 연봉 조정신청 자격을 얻은 서재응이 구단과 일찌감치 재계약할 수 있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